



"천재지변은 잊었을 무렵에 일어난다."고 합니다. 동일본대재해로 우리들은 이 말을 떠올립니다. 그 참사로 8년이 지났습니다. 일본은 방재에 대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, 방재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.

2018년은 일본 전국에 지진, 태풍, 홍수 등 많은 자연재해, 재해급의 폭염이 있어,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. 그리고 수도, 전기 등 인프라의 재해에 의해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곤란한 이재민도 많이 있었습니다.

사이타마시는 지금까지 특히 큰 재해가 없었던 "재해가 없는 안전한 시"로 "여기서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"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.

자연재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. 나라와 지방 자치단체가 발신하는 방재 정보를 얻어 재해를 최소한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서 평소 대책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"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"
- 유비무환



- 주변 이웃과의 평소의 교류, 교제로 서로 돕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.
- 자치회의 가입(피난 훈련 등의 참가), 피난소 생활의 협력.

**시가 발신하고 있는 지역의 재해에 관한 정보를 HP에서 확인함.**  
지역의 지세·하천·예상되는 지진을 안다.

「사이타마시 해저드 맵 검색」

<https://www.city.saitama.jp/001/011/015/002/003/index.html>

- 방재 진료기록카드 시내 중학교별 문제를 정리하여 지역 도움 지도 작성에 이용한다.
- 해저드 맵
  - ① 사이타마시 침수(내수) 방재 지도  
(영어, 한국어, 중국어의 다국어 페이지가 있습니다.)
  - ② 사이타마시 토사 재해 해저드 지도
  - ③ 사이타마시 지진 방재 지도    ②③은 일본어 표기만 있습니다.

자연재해를 막는 것은 어렵지만, 태풍, 큰비처럼 예보 등으로 사전에 안전하게 피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재해도 있지만, 2018년의 재해 발생 때는 피난 권고를 받아들여서 피난소에 피난한 사람들이 적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

「재해 대국」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일본의 생활은 매일 생활 속에서

- 긴급시에 상담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둔다.
- 긴급시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둔다.(각 가정의 인원수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.)
- 어디로 도망치면 좋은지, 어디로 피난하면 좋은지 찾아 둔다.



일본인이나 외국인도 각자 재해에 대한 마음가짐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